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가 국내산 돈육에 미치는 영향



이 위 형 소장
미트비즈니스 센터

2006년 9월 8일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가 허용되었다. 이로 인한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 감소와 가격의 하락으로 양축업계가 향후 전개될 어려움에 대하여 걱정들이 많은 듯 하다. 과연 현재 예상하는 어려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예상하여 보면서 대안방법을 검색하여 보면서 돼지고기의 공급과 소비의 향후상황을 과거의 실적을 되돌아 참고하며 전망을 예상하여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과거 쇠고기 수입경향

2002년 쇠고기수입량 292,231톤 중 미국산이 186,631톤(63.8%), 2003년 293,626톤 중 미국산이 186,031톤(63.3%)의 실적을 보이다가 BSE 발생으로 미국 쇠고기가 수입 정지된 2004년 132,869톤과 2005년 142,591톤으로 각 2003년 대비 45.2%와 48.5%의 수입량으로 급감하면서 국내산 쇠고기와 함께 호주산 쇠고기 또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돼지고기로 대체소비 현상이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돼지의 도축두수는 2003년 15,286천여두에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4,619천여두와 13,464천여두로 감소됨으로서 삼겹살을 중심으로 돈가의 고공행진과 함께 생돈가격도 높은 가격으로 탄력의 지속성을 유지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입돼지고기 또한 부족되는 수량, 특히 삼겹살을 중심으로 수입량의 폭증이 이루어지면서 2003년 대비 매년 60~70%를 넘나드는 상황을 나타냈다.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도 '02년 17kg, '03년 17.4kg, '04년 17.9kg으로 증가 후 '05년은 높은 소비자 가격과 경기불안의 영향 등으로 17.5kg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국내 생돈도축 예상두수가 약1,310만 두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공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돈육은 작년 대비 약 9% 증가할 것으로 보아 19만톤 정도 가까이 이루어지면서 소비는 2004년 수준인 1인당 17.9kg으로 추정되어진다.

이렇듯 국내 생돈의 도축수량의 감소는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살펴보면 갈비류가 70%가량으로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이 빼어난 살코기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BSE 발생전과 비슷한 수량이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된다 해도 '03년 대비 3% 내외로 추정되며 수입돈육의 공급에 따라 변화가 있겠으나 지육가격 역시 '04년 평균가격의 10% 수준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폐사율의 증가로 인한 원인이 큰 것으로 생각됨으로 각별한 사육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보임은 잘 알려진 일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 쇠고기의 공급재개가 주는 영향보다 더 큰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쇠고기가 위의 제반 열거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고, 가늠하여 봄으로서 향후 어떤 파급영향이 나타날지를 살펴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파급영향

우선 미국산 쇠고기의 과거 수입실적을 중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03년까지 일반적으로 각종 갈비부분 상품들이 약 67%, 목심(윗등심살)이 약 22%를 점유함으로써 불고기와 갈비뼈를 중심으로 한 구이 소비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입쇠고기 공급에서도 미국산이 약 68%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이 빼어난 살코기에 국한되면서 BSE 발생 전처럼 뼈가 붙은 수량과 비슷한 수량의 쇠고기가 공급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첫째가 30개월로 연령 제한이 설정되었고, 둘째, 뼈가 제외됨으로서 갈살은 육의 두께가 확보되어야 상품성을 나타낼 것이며, 셋째, 뼈 없는 제품생산의 난이도 발생으로 생산성의 저하, 넷째, 32개의 도축장으로 현재 제한된 승인이

되었고, 다섯째, 국내 공급과 소비시장의 안정화에는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의 흐름이 급격하게 왜곡되거나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한다.

단 돈육의 가공이나 소비처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인위적 변화(홍수출하 등 밀어내기 출하)를 시도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의 계기를 마련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가격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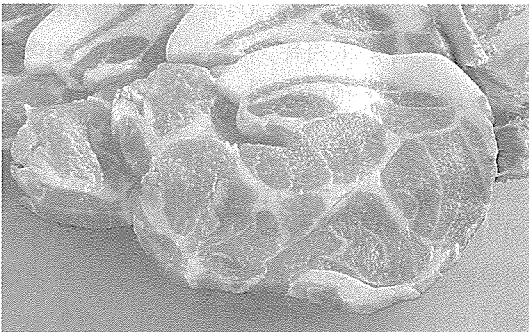
국내 돼지 지육가격을 살펴보면 '03년 평균가격이 2,444원/kg에서 '04년 3,479원/kg으로 142.3%로 속등된 지육 가격은 '05년으로 이어졌으며 '06년에도 매년 그러하듯이 계절에 따라 다소 약세의 등락 속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요 부위인 삼겹살을 중심으로 2~3년간 저가 쇠고기에 육박하는 고가의 소비자 가격으로 소비둔화를 초래하는 단초를 초래하였고 수입돈육의 폭증을 부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국제 사료가격도 인상되고 돈육소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중요 수입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주지역의 생돈가도 인상되고 돼지고기 부분육의 수입가격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수입량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국내산 공급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금년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량은 초기 시장적응을 위한 공급이 조심스런 수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소비의 방향을 가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 질 것이므로 국내 돈육소비를 둔화시키는 큰 세력으로 나타나기에는 쉽지 않겠으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지육가의 상승에는 제동장치 역할을 나타내거나 출하량 증가로 가격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면이 염려된다.

그러나 미국의 빠 없는 갈비 살과 유사부위의 공급은 빠있는 제품이 수입될 때 수입량의 약 30% 정도 미만으로 공급이 될 것이며, BSE 전에 약세를 보였던 등심과 채끝 등 고급부위의 제품과 기타 구이용 부위의 개발이 이어져서 홍보가 잘 이어지고, 시장적응은 수입검역에서 특별한 부분적인 장애요소 없이 무난하게 소비시장에 진입한다면 내년 상반기를 적응기간으로 보아 조금씩 돈육 소비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도래할 수 있을 것이며, 수시 소비시장에서 충돌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반기에는 큰 무리 없는 수입이 점증하게 되면 새로운 소비 패턴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돼지고기와 소비 세력의 접전이 예상되고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인 동반 소비 증가를 나타내는 가운데 열세를 면치 못할 것 같으며, 이는 국내 생돈공급이 금년의 실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능해보는

것으로 현재의 돼지 지육가격이 10%만 하락 한다 하여도 내년 후반기 생돈가에 미치는 영향은 각종 질병으로 인한 피해문제와 불안한 사료가격의 인상문제, 양돈장의 오폐수 처리와 돈사환경에 대한 부담 등 어려운 양돈농장들의 불안은 증대 될 것으로 보아진다.

금년말까지 수입재개로 인한 돈육가격 영향크지 않을 전망

문제는 앞으로 수입량이 크지 않다하여도 미국 쇠고기 공급과 맞물려 사료가 인상, 질병문제 등이 함께하면서 양돈의 어려움이 발생함은 피할 수 없을 것이나 돼지고기의 소비가 감소된다 하여도 '03년 대비 약 3% 수준 내외가 추정되며, 지육가격은 수입돈육의 공급량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아 등락이 이어지겠지만 '04년 평균가격의 10% 수준 내외로 추정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적응이 무난하여 수입쇠고기 전체수입량이 60%이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 가격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예측되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 하여도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돌파하는 기회라고도 했다. 물러날 곳이 없는데 어디를 갈 것인가. 강한 의지로 맞서겨뤄야 할 것이며, 기회는 용기 있는 자의 전유물이며 수확이다. 성취감은 어려운 가운데서 얻는 것이요 기쁨을 만끽하며 맛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도불이로 무장된 우리들의 소비자들이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들의 곁에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용기와 불패의 정신무장을 통하여 우리의 소비자를 지킬 지어다. 여기에는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 모두가 느끼는 가치의 크기를 공유하는 모습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야 한다. **양돈**